

올해 마지막 대상경주 “최강 암말 가리자”

‘제주’ 라온퍼스트·위시미 양강구도
전통 강자 꼽히는 리드머니도 출격

‘경기’ 최강블랙, 강력한 우승 후보
라온핑크·어디가나·루비콘과 경합

19일 서울경마공원에서는 올해 마지막 암말 대상경주가 잇따라 열린다. 3세 이상 국산 암말들이 겨루는 7경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GⅢ, 1400m, 총 상금 3억5000만 원)에 이어 트리플 티아라의 마지막 대회인 ‘경기도지사배’(GⅢ, 2000m, 총 상금 3억 5000만 원)가 8경주로 열린다.



19일 서울경마공원에서는 올해 암말이 출전하는 마지막 대상경주가 7, 8경주로 잇따라 열린다. 8경주로 열리는 트리플 티아라 시리즈의 마지막 레이스인 경기도지사배에서 유력한 우승후보로 꼽히는 최강블랙의 질주 모습.

●**제주도지사배, 라온퍼스트·위시미 각축**
▲라온퍼스트(4세, R98, 승률 50%, 복승률 57.1%)
2세 때 이미 과천시장배(L)를 우승한 최강 암말이다. 올해 기량이 더 상승하며 주행기록을 갱신 중이다. 1400m에 여섯 번 출전해 승률 50%, 연승률 83.3%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출전마 중 해당거리 최근 및 최고 기록 모두 가장 앞서있다. 8경주 ‘경기도지사배’에 출전하는 라온핑크와 자매마다.
▲위시미(4세, R64, 승률 83.3%, 복승률 83.3%)
지난해 400m로 열린 경기도지사후원 특별경주에서 클리어검, 리드머니, 라온퍼스트 등을 제치고 우승했다. 총 여섯 번 출전해 장거리 경주 1회를 제외한

중단거리 다섯 경주를 모두 우승했다. 레이팅은 출전마 평균에 가깝지만 최근 6회 출전 수득상금이 2억4000만 원으로 라온퍼스트보다 1억 원 이상 높다. 이번 경주도 라온퍼스트와 치열한 선일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리드머니(7세, R85, 승률 11.4%, 복승률 22.7%)
올해 출전마 중 가장 노장이지만 여전히 기량을 자랑한다. 2018년에 이 대회에서 우승했고, 2019년에는 준우승을 기록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의 전통 강자다. 총 44전, 대상경주만 17전 출전한 베테랑 경주마다.

●**트리플티아라 마지막대회 경기도지사배**
▲최강블랙(R55, 승률 37.5%, 복승률

37.5%)
부산경남을 대표하는 암말 경주인 ‘코리아안 오크스’에서 우승했다. 2000m는 첫 도전이지만 데뷔 첫 해 급부상한 신예임에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3승을 함께 했던 안토니오 기수와와의 호흡이 기대된다.
▲라온핑크(R71, 승률 66.7%, 복승률 88.9%)
루나 스테이크스(Stakes) 우승까지 5연승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다 ‘코리아안 오크스’에서 최강블랙에 일격을 당했다. 그래도 여전히 이 대회의 강력한 우승후보다. 가장 높은 레이팅과 수득 상금의 기록을 갖고 있다.
▲어디가나(R50, 승률 33.3%, 복승률 33.3%)

1200m, 1400m 그리고 1800m까지 거리별로 1승을 기록했다. 첫 대상경주 출전인 ‘코리아안 오크스’에서 5위를 기록했지만 지난 경주보다 기록을 2초 이상 단축해 장거리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다. 최근 400승을 달성하며 기세가 높은 유승환 기수와 함께 두 번째 대상 경주 도전에 나선다.
▲루비콘(R48, 승률 16.7%, 복승률 58.3%)
총 12번의 경주 중 두 번의 우승과 5번의 준우승을 기록했다. 단승 가능성보다 복승률이 주목 받는 경주마다. 가장 최근 참가한 17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영광의레전드, 위너스타 등을 배출한 콩코드포인트의 자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마사회, 경영 혁신 드라이브 BP 창출게임 콘테스트 성과

품종 개량 케이닉스 사업 등 6건 시상

한국마사회는 8월, 조직의 WP(Worst Practice)를 해소하고 3무(무기력, 무관심, 무대책)가 없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경영 혁신의 발판이 될 수 있는 ESG 경영, 업무혁신, 경영위기 극복 세 가지 분야의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8일 외부 전문평가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기관을 대표하는 우수성과를 공유, 확산하기 위한 ‘BP(Best Practice) 창출게임’ 콘테스트

를 열었다. 특히 이번 콘테스트는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기획으로 주목을 받았다.
올해 각 부서에서 성과를 낸 17개의 대표 과제들을 발표했으며,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여건을 고려해 사내 방송을 통해 진행했다.
콘테스트 결과 최우수상은 토종 경주마 품종 개량기술로 세계 경주마 랭킹 1위에 오른 닉스고를 선발하는데 기여한 케이닉

스 사업과 약 1300억 원 규모의 유류 자산을 정부·지자체와 협업체 공익목적으로 매각을 추진한 과제 등 두 가지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비대면 중심의 데이터 기반 불법경마 단속 패러다임 전환’ 과제를 비롯해 4건이 선정됐다.
한국마사회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사내 게시판과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알리고 기관 SNS를 활용해 대국민 홍보에도 나선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히트예감, 농식품부장관배 우승 ‘최고 3세마’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에서 히트예감이 와이어투와이어로 우승했다. 트리플크라운 3개 경주 중 2개를 석권하며 최고 3세마로 우뚝 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는 최고 3세마를 뽑는 트리플크라운 시리즈의 마지막 관문이다. 시리즈 전부터 유력 우승마로 기대를 모았던 히트예감은 ‘KRA컵마일’에서 우승, ‘코리아인터비’ 준우승에 이어 시리즈 최종전에서 다시 우승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topspe@donga.com

라이프

2021 스포츠동아 대상·동아일보 황금대상 시상

▶스포츠동아 대상



김정률(서울 김동명일)



김석환(경기 원미도당)



서명길(부산 전포부전)



홍성욱(충남 천안북부)



송은임(서울 원효)



이성수(서울 잠원)

▶동아 황금대상



이형길(인천 간석)



최광비(경기 하남)



최재윤(경북 포항)



이승곤(울산 남울산)



김건호(강원 신원주)



서대진(광주 봉선)

스포츠동아 대상 4명…황금대상 8명 등 수상

스포츠동아는 16일 올해 우수한 운영성과를 거둔 독자센터 사장에게 수여하는 ‘2021년 스포츠동아 대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다. ‘스포츠동아 대상’은 2013년에 제정돼 매년 연말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로 9회째다.

‘2021년 스포츠동아 대상’ 수상자는 김정률(서울 김동명일), 김석환(경기 원미도당), 서명길(부산 전포부전), 홍성욱(충남 천안북부) 독자센터 사장이다.

동아일보는 같은 날 올해 우수 독자센터 사장에게

수여하는 ‘2021년 동아 황금대상’ 수상자 8명을 선정했다. ‘동아 황금대상’은 지역별로 공헌도가 높은 독자센터에 수여하는 상으로 2002년 제정됐다.

수상자는 송은임(서울 원효), 이성수(서울 잠원), 이형길(인천 간석), 최광비(경기 하남), 최재윤(경북 포항), 이승곤(울산 남울산), 김건호(강원 신원주), 서대진(광주 봉선) 독자센터 사장이다.

‘스포츠동아 대상’과 ‘동아 황금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식적인 시상식 없이 지역별로 간소하게 전달식을 진행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히말라야·북한산 VR로 생생 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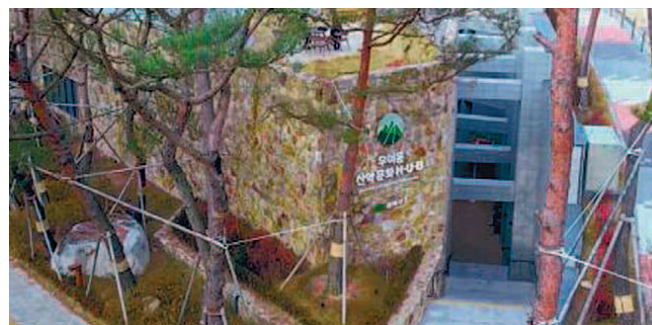
‘우이동 산악문화 허브’ 오늘 개관
등산 지식 배우고 암벽 등반 훈련
체험 프로그램 연말까지 무료 운영

“히말라야와 북한산을 한 자리에서 체험하세요.”
‘서울의 명산 1번지’ 북한산과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관이 문을 연다. 서울 우이동에 있는 ‘우이동 산악문화 허브(H·U·B)’가 17일 정식 개관한다. 지하 2층 3800㎡(약 1150평) 규모다.
허브는 북한산과 히말라야를 한 자리에서 즐기는 전시 체험관이자 산악문화가 융합된 복합 공간이다. 산악체험관, 에베레스트 전시관, 기획 전시실, 휴게시설 등을 갖췄다.

산악체험관은 초보 등산객에게 등산의 기초 지식을 알려주는 훈련 장소다. 배낭 꾸리기부터 산행 목적에 맞는 옷과 신발 고르기, 올바른 걷기, 다양한 매듭 묶기까지 등산 전 필수 사항을 안내한다. 체험관 한편에는 북한산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영상관과 볼더링 벽을 갖춘 실내 암벽장이 조성됐다.

에베레스트 전시관은 히말라야 도전의 역사가 360도 전방위로 펼쳐지는 영상시스템을 구비했다. 엄홍길 대장이 히말라야 정상에 오를 때 사용했던 등산장비를 볼 수 있다.

가상현실(VR)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산악자전거, 스키, 실내 암벽 운동기구(클라이밍 머신) 등에 올라 가상 현실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 자전거나 스키로 익스트림 스포츠에 도전하게 된다. 암벽 운동기구 페달을 밟으며 만



서울 우이동에 위치한 ‘우이동 산악문화 허브’가 17일 정식 개관한다. 산악체험관, 에베레스트 전시관 등 다양한 시설을 갖췄다. 아래는 우이동 산악문화 허브 내부. 사진제공 | 서울 강북구

년설로 뒤덮인 히말라야 정상을 오를 수도 있다.

체험 요금은 꾸러미 종류에 따라 청소년 5000~8000원, 성인 8000~1만원까지 다양하다. VR프로그램만 선택하면 1회당 이용료가 1500~3000원이다. 단체(20인 이상)와 2명 이상 다동이 가족은 요금 30%가 할인된다.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까지 무료이며, 내년부터는 전면 유료로 운영된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